

열왕기상 18 - 2. 갈멜산에서의 '엘리아' (왕상 18:21-46)

들어가기

지난 시간 '엘리아'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나타난 가뭄과 기근이 자신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아합' 왕을 향하여, 이 재앙은 그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아합' 왕과 그 집안의 죄 때문이란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 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여 자신과 대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엘리아'의 제안을 받아 들인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자, '엘리아'가 저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처형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1. '엘리아'와 '바알'의 제사장들의 갈멜산 대결 (21-40 절)

1) '엘리아'는 먼저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1 절)

-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어느 때까지 두 의견으로, 혹은 두 의견 사이에서, 절뚝거릴 것이냐' 라는 뜻!
 - 곧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상태는 심적으로 하나님과 바알을 혼합하여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분열하고 있었음을 지적한 것!
 - B hr. Keil :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숭배를 혼합하려는 세력과 순수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음!
 - 그러나 '이세벨'의 강압적인 우상숭배 정책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고, 여호와 신앙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음!
- 그로 인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함!
 - 참고로 여호수아 24 장 14-16 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 여호수아도 똑 같은 질문을 백성들에게 던졌음! (하나님과 다른 신 중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
 - >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고, 다른 신은 결코 섬기지 않겠다고 답하였음!
 - 그러나 '아합'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부답이었음!
-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겠는가?
 -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2) '엘리아'는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강조하며,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22 절)

- '나만 홀로 남았다'는 말은 진실인가?

- 그런데 당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만 있다고 말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고 있는 선지자가 자신뿐임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한 말로 보아야 할 것! (Hammond, Montgomery).

3) 이때 ‘엘리야’는 망설이는 백성들 앞에서 누가 진실로 살아있는 신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결을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제안했습니다. (23-24 절)

- 그럼 ‘엘리야’가 제시한 대결의 내용은 무엇인가?
 - ①.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와서 각각 각을 떼서 나무로 쌓은 제단 위에 올릴 것!
 - 이것은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행해지던 기본적인 희생 제사의 방식임.
 - ②. 각자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를 것!
 -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의 존재가 실존한다는 것을 근거로, 그의 응답을 기대하는 행위임!
 - ③. 그 응답의 방법은 불로 제물을 불사르는 것!
 - 참고로 당시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이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자 태양과 불의 신으로 믿고 있었음! 따라서 엘리야의 제안을 동의할 수 밖에 없었을 것!

4)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우선권을 주며 ‘바알’을 부르라고 제안했습니다. (25-26 절)

-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확고한 믿음과 자신감을 나타낸 것!
- 우선권을 잡은 ‘바알’의 제사장들은 이른 아침부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바알’에게 불을 내려 달라고 간구하였음!
 - 26 절에 ‘아침부터 낮까지’는 ‘이른 아침, 곧 동이 트고 난 직후’부터 오전까지를 의미!
 - 따라서 대략 5-6 시간 동안 저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것!
 - 그러나 성경은 아무런 소리고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다고 기록!

5) 정오가 되도록 아무런 답이 없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더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부추겼습니다. (27-29 절)

- ‘엘리야’의 조롱 -> 참 약이 오를만한 조롱이 아닌가!
 - ①. ‘그는 신인즉’ - ‘바알은 신이 아닌가?’ 되물으며 진짜 신이 맞냐고 조롱.
 - ②. ‘묵상하고 있는지’ -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토록 불러도 아무 답이 없는 상태를 조롱.
 - ③. ‘잠간 나갔는지’ - 원/의미는 ‘잠깐 쉬기 위해 들어간 것 아닌지’ 란 말로 조롱!
 - ④. ‘길을 행하는지’ - ‘길’은 ‘데레크’란 말로 ‘수일이 걸리는 여행’을 의미!. 곧 아무 답이 없는 이유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서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조롱.
 - ⑤.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 당시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한낮에 낮잠을 자는 습관을 이용해 조롱한 것.
- 그러자 저들은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며, 자신들의 규례대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함!

- 28 절의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상하게 함’
- 지금도 많은 종교가 자해와 고행이 신의 축복을 얻는 길이라 여기며 가르치고 있음!
- 그러나 성경은 결코 자해는 물론이고, 지나친 금욕주의를 경고하며, 경건생활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다고 가르침! (골 2:20-23) 나아가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이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됨을 가르침! (롬 3:20-23, 갈 2:16, etc.)

- ‘바알’의 제사장들은 저녁 소제 때까지 자신들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광기 어린 행동으로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하였음!
 - ‘저녁 소제 드릴 때’ -> 오후 3 시쯤 성전에 떡과 과자를 바치는 때를 말함.
 - 곧 해가 뜨는 이른 아침부터 오후 3 시까지 저들은 쉬지 않고 ‘바알’을 찾았다는 것!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자 ‘엘리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고, 먼저 무너진 여호와와 제단을 수축하게 하였습니다. (30-31 절)

- 무너진 여호와와 제단을 ‘수축하다’ 곧 ‘고쳤다’는 말을 보아, 아마도 그 곳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아마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모든 여호와와 제단을 헐 때, 같이 헐렸다고 추측됨!

7) 이 후 ‘엘리아’는 차근 차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제단을 준비하였습니다. (32-35 절)

- ①. 열 두 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게 함!
 - 이것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가 행한 행동과 비슷함. (수 4:9)
 - 곧 비록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의 백성임을 생각나게 함!
- ②. 조상 ‘야곱’과 그 이름의 뜻 ‘이스라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함으로써, 잊고 있었던 민족적 소명의식과 존재의식을 회복하게 함!
- ③. 제단을 중심으로 곡식 종자 두 세아를 돌만한 도량을 돌아가며 파도록 함!
 - ‘세아’(Seah) 는 구약 시대의 고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으로써 1 세아는 약 7.6 리터임.
 - 곧 두 세아, 약 15 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깊이의 도량을 제단 주위로 파게 함.
- ④. 그 후 통 넷에 물을 길어 3 번에 걸쳐 제단 위에 놓인 제물에 붓게 함!
 - 그로 인해 제물과 나무는 물론이고 제단 주위의 도량까지 물이 가득 차게 만듦.
- 참고로 그럼 왜 4 통의 물을 3 번에 걸쳐 붓게 했을까?
 - 4 통씩 3 번의 물을 부으면 총 12 통의 물을 사용한 것 -> 이스라엘 12 지파를 상징.
 -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는 것은 최종적이고 결론적인 것을 의미함!
 - 곧 제물은 물론이고, 제물을 받치는 나무와 제단, 그 제단 주위의 모든 것까지 완전히 젖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내기 위한 것!
 - 곧 제물에 불이 붙는다면 이는 결코 인간적인 눈속임이나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

8) 이상의 모든 준비가 끝나자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되심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36-38 절)

- ‘엘리야’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함!
 - 여기서 우선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킨 말
 - ‘엘리야’는 이때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조상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름!
- ‘엘리야’는 단순히 불을 내려 달라고 하지 않고, 백성들이 깨닫고 알게 해 주시길 기도함!
 - 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길! (36 절)
 - ②.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길! (36 절)
 - ③.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일임을 알게 해 주시길! (36 절)
 - ④.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길! (37 절)
 - 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시길! (37 절)
- 특별히 여기서 ‘안다’는 말의 원어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엘리야’가 모든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와 불이 하늘에서 내려 제단 위의 모든 번제물을 불태우고, 제단 주위의 물까지 다 마르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음!

9) 이를 본 백성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의 제사장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잡아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39-40 절)

- 당시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여호와와 불'의 즉시 임한 것은 분명 ‘바알’의 제사장들과 큰 대조를 보이는 것! ->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과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것!!
- 그 결과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음!
 - ①. 즉시 제단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
 - ②.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명쾌한 고백을 거듭해서 반복했다는 것!
-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도망치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담대하게 잡아 ‘기손’ 시내에서 처형함!
 - 이 모습은 21 절의 모습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 것!
 -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도 비슷!)

2. 다시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 (41-46 절)

1)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인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올라가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41 절)

-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말을 볼 때, 당시 ‘아합’은 하루 종일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온 종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됨.

- 그런데 ‘엘리아’가 승리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임을 당하자 큰 충격에 빠졌을 것!
- 이런 ‘아합’을 ‘엘리아’는 진정시키면서, 우선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쉬라고 권함!
- 그러면서 곧 비가 올 것이라 예언함!

2) 이후 엘리아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비를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2-43 절)

- 참고로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1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아합’에게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
 - 그러나 ‘엘리아’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기도했다는 것!
 - 이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줌!
- ‘엘리아’는 자신의 사환에게 일곱 번씩이나 바다를 살피며 기후의 변화를 확인하게 했음.
 -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7 은 하나님의 수이자, 완전한 승리의 수를 의미함.
 - 곧 ‘엘리아’가 사환에게 일곱 번씩이나 확인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도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함!

3) 사환으로부터 작은 비 구름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아’는 ‘아합’ 왕에게 큰 비를 피하기 위해 빨리 마차를 준비해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전했습니다. (44 절)

- 여기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빨리 가라고 한 것은, 당시 갈멜산 아래를 흐르는 ‘기손’ 시내에 큰 비가 올 때마다 범람하여 길이 끊기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

4) 사환이 ‘엘리아’의 말을 전한 후, 얼마가 지나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아합’ 왕은 ‘엘리아’의 말대로 즉시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 성으로 달렸습니다. (45-46 절)

- 45 절에 ‘조금 후에’에 해당하는 원어는 '손이 앞뒤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이라는 뜻!
 - 곧 바다 저편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얼마나 빠르게 폭우로 변했는지를 상상하게 함!
- ‘이스르엘’ 성은 갈멜산 동남쪽 약 20-25km 에 위치한 성으로, 과거 ‘솔로몬’이 세운 다섯 행정 구역 중에 하나로 ‘아합’, ‘아하시야’, ‘요람’ 등은 이 성을 별궁으로도 사용함.
- 그런데 이때 ‘아합’의 마차가 비를 피해 이 성으로 달릴 때, ‘엘리아’가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렸다고 성경은 기록함!
 - 이는 ‘여호와와 능력이 ‘엘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함!
 - 원어적으로 ‘여호와와 손이 ‘엘리아’와 함께 했다’는 뜻!
 - 이것은 곧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이끈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아’가 다시금 ‘아합’의 눈 앞에서 확인시켜 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이라 볼 수 있음!

4.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

5. 중보기도 나눔